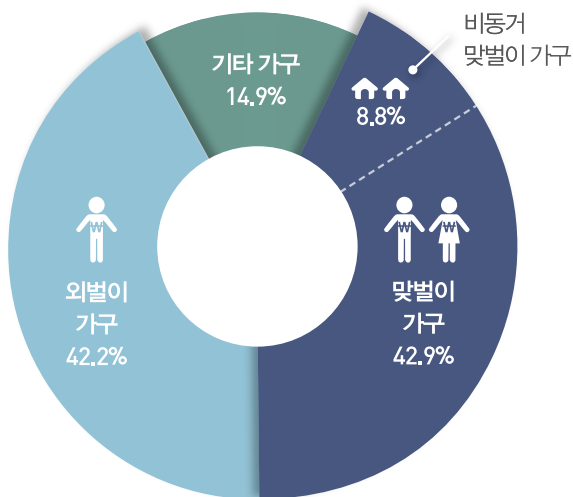




발행처 |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

발행인 | 유재일 편집인 | 주혜진 디자인 | 디자인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| 2015. 5. 31.

가사분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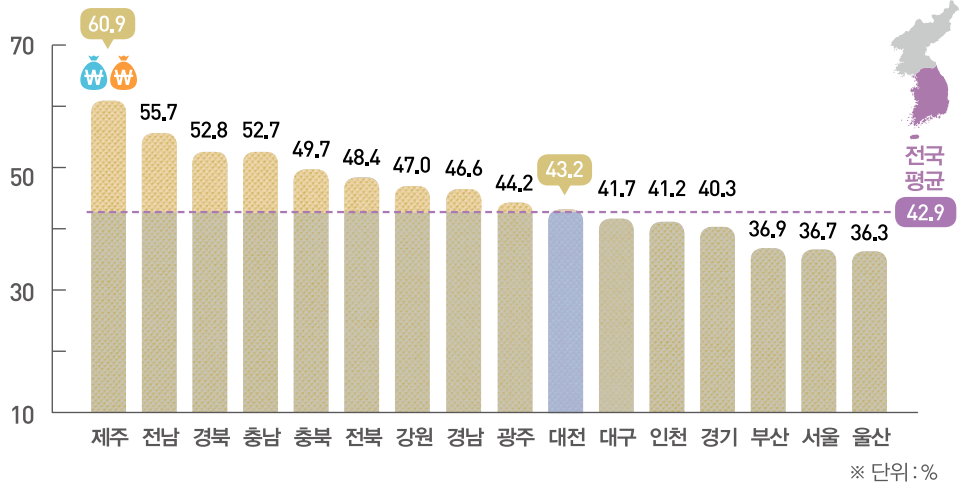
01 유배우 가구 현황

통계청 2013년 맞벌이 가구 현황에 따르면 유배우 가구는 1,178만 가구이고, 이중 맞벌이 가구는 505만5천 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2.9%를 차지하였으며, 맞벌이 가구 중 8.8%(44만7천 가구)는 부부가 같은 가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'비동거 맞벌이 가구'인 것으로 나타났다. 외벌이 가구는 497만1천 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2.2%, 기타 가구는 175만3천 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14.9%를 각각 차지했다.

※ 자료출처: 통계청 보도자료(2014.6.25.), 2013년 맞벌이 가구 현황
 ※ 기타 가구는 부부(가구주와 배우자) 모두 취업자가 아닌 가구



02 시·도별 맞벌이 가구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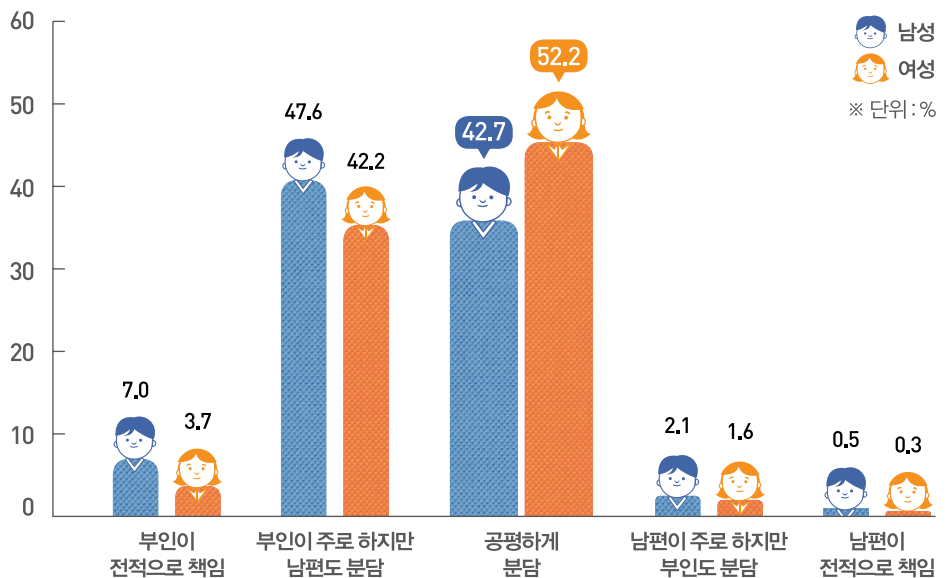


시·도별로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, 전국 평균 42.9%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맞벌이 가구 비율이 60.9%로 가장 높았다. 이어서 전라남도 55.7%, 경상북도 52.8%, 충청남도 52.7% 순으로 높았으며, 울산광역시는 36.3%로 맞벌이 가구 비율이 가장 낮았다. 대전의 경우 43.2%로 전국 평균(42.9%)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. 현황을 살펴본 결과 농림어업과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이 많은 지역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.

※자료출처: 통계청 보도자료(2014.6.25.), 2013년 맞벌이 가구 현황
※비율=(맞벌이 가구/유배우 가구)×100



03 가사분담 견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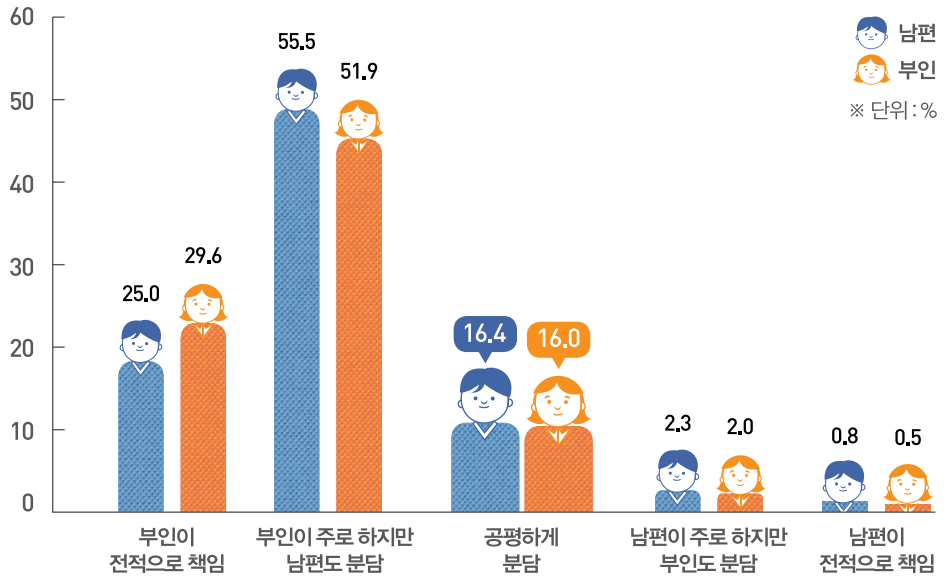


통계청 201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가사는 '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'고 생각하는 남성의 비율은 47.6%, 여성은 42.2%로 나타났으며, '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'고 생각하는 남성은 42.7%, 여성은 52.2%로 조사되었다. 많은 여성과 남성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거나 남편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자료출처: 통계청, 2014 사회조사
※ 가사분담 견해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됨



04 가사분담 실태



그러나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의 가사분담 실태를 살펴보면 ‘공평하게 분담한다’고 응답한 남편은 16.4%, 부인은 16.0%에 불과하며, ‘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’고 응답한 비율은 남편 25.0%, 부인 29.6%로 현실은 다르게 나타났다. 가사일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어 부부간 가사노동 수행정도에 있어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※자료출처: 통계청, 2014 사회조사

※가사 분담 실태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됨

1) 남편 가사분담 실태는 부부 중 남편이 응답한 것임 2) 부인 가사분담 실태는 부부 중 부인이 응답한 것임

2015년 제2차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포럼 개최

“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?”



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지난 5월 15일 대덕구 평생학습원에서 ‘2015년 제2차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포럼’을 개최했다. 본 포럼을 통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여성친화도시 수립에 유용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, 대덕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과 성주류화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.

이날 포럼에서는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추진전략단장의 ‘여성친화도시의 추진배경과 사업추진의 기본, 여성친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기초작업,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사례’ 발표를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 현황 및 조성 절차를 논의하고, 여성친화도시 사업 등을 제안했다. 또한 대덕구의 기초현황, 조성여건 검토, 정책 및 조성사업, 여성친화도시 사업 방향 및 목표, 세부 과제 및 사업 제안 등에 대해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, 박재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대표, 박현주 대덕구의회 의원, 심승영 전북대학교 교양학부 교수, 양명숙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, 정진일 대덕구 여성가족과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.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,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구성,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담인력 운영, 안전하고 친화감 있는 도시 이미지 구축 등 대덕구만의 특색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.

